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사순절 제4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6.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삼월의 햇살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듯이 음습한 욕망과 이기심에 갇혀 있던 우리의 마음을 여오니, 우리 속에 오셔서 새 생명의 봄기운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혹시라도 새싹이 움텄나 싶어 양지널을 기웃거리다가, 문득 우리 속을 살피시는 주님의 눈길과 만났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 마음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주님, 은혜의 봄비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덜 중요한 일에 마음이 팔려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세련된 신앙인이 되기보다는 투박하더라도 진리를 옹골차게 붙드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갈채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미소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59:21	인도자
♣ 교 독 문	5. 시편 13편	다함께
♣ 영 광 송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함께
대표기도	I. 임고운 선생 II.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73.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다함께
성경봉독	I. 빌2:5-11	인도자
	II. 출20:22-26	백혜숙 권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I. 참된 믿음의 자리	최인환 전도사
	II. 투박함과 세련됨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	502.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미풍처럼 부드럽지만 내면에는 화산을 간직한 사람처럼, 머무는 곳 어디에서나 새로운 삶의 기운을 불어넣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한복판에서 방황할 때 주님께서 친히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부드러운 유혹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에 주님이 지셨던 투박한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교회학교 교사 헌신예배	3월 기도의 밤
말씀 : 김재흥 목사	인도 : 김기석 목사

<b>다음 주 예배위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조윤숙 선생 한완식 장로	인도자 김근종 권사

<b>3월</b>	영접위원	한완식 박창운	고사일 유영남	박홍재 이영란
	헌금위원	김철수 김정길	김인걸 조병주	배상순 장혜숙

##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라는 질문에 평생을 지긋지긋한 가난과 싸우고 있는 사람은 서슴없이 ‘밥’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실 밥의 문제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칼의 노래》라는 소설로 유명한 작가 김훈은 자기 인생의 사과나무는 ‘밥’이라고 말했습니다. 얼핏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 말에 담긴 절박성에는 대체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여기는 그에게 ‘밥’의 문제를 도외시한 관념은 사치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람은 ‘밥’도 먹고 살지만, ‘보람’을 먹고 산다고 말해 왔습니다. 여기서 ‘보람’은 ‘의미’라는 말로 바뀌도 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마4:4)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삶의 그런 차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내게 의미 있고, 보람있다고 느끼면 밥을 새워도 힘든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이 내게 아무런 보람을 주지 않는다면 그 일은 고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도무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이라지요? 지금까지 인생을 푸는 저의 코드는 ‘의미’였습니다. 그 일이 의미가 있는가? 무의미한가? 이것이 모든 일에 대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은 무엇을 먹고사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밥’과 ‘의미’ 이외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정말 느닷없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왔던 사단법인 <개혁자들>의 대표 송강호 목사의 강의는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한 차원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독립전쟁과 내전으로 피폐해진 동티모르인들을 돕기 위해 간 자원봉사자들이 ‘화해와 재건’이라는 주제를 내걸었을 때, 현지인들은 거기에 ‘축제’를 덧붙이자고 했습니다. 그 분쟁 과정에서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수없이 경험한 그들의 제안치고는 너무나 뜻밖의 요청이어서 봉사자들은 그 원인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살아갈 힘은 기쁨으로부터 나

오는데, 우리는 그 기쁨을 너무나 오랫동안 맛보지 못했습니다.”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그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치유의 몸짓이었던 셈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었던가 생각해봅니다. 물론 그것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에게 기쁨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상대방에게는 고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현실이 제 아무리 힘겨워도 그 현실에 짓눌리지 말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라는 도덕적 교훈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기쁨이 때로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삶이 힘겨워도 기쁨이 있으면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여배우 이은주씨의 문제는 살아있음을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기에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쁨은 함께 나눌 사람이 있을 때 온전해집니다. 때때로 삶에 축제가 필요한 까닭은 그 때문입니다. 맥락은 다르겠지만 시편 기자의 말은 인생의 깊은 곳을 관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제의 합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시89:15)

일년에 세 차례씩 순례의 명절을 지켰던 이스라엘은 축제의 합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이었습니다. 일찍이 신학자 하비 콕스는 《바보祭》에서 중세기의 서민들이 즐겼던 잔치를 분석하면서 그 속에 내재한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밝혀냈습니다. 하나는 축제입니다. 중세기의 서민들은 이 축제를 통해서 고통과 슬픔과 절망으로 차 있는 현실의 역사를 용서하고 긍정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환상입니다. 민중들은 당시의 지배층인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풍자함으로써 그 권력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에 의해 지양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생을 너무 심각하게만 대해온 것이 아닌가 반성했습니다. 삶에는 기쁨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함께 함’에서 오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생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은 변혁의 누룩입니다. (석)

## 높은 산을 만날 때는

산악인들이 휴대하는 무슨 등산장비를 가지고 준령을 넘는 것도 아니고, 또 말이나 야크에다 텐트와 식료품을 지우고 전도여행을 하는 것도 아니다. 담요 두 장과 성경 한 권, 썬다의 바랑에는 부식도 비어 있는 때가 많았다. 전도 후 누가 친절하게도 말린 밀떡이나, 또는 여타 식품을 주면 받고, 주는 것이 없으면 구걸하지 않았다. 그냥 굶주리는 것이다. 그에게는 굶주림이나 높은 산이 문제가 아니었다. 굶주리는 때는 주님께 기도하여 힘이 되어 달라고 청했고, 높은 산을 만날 때는 그의 정신을 산보다 더 높였다. 이것은 실로 그가 히말라야의 준령들을 넘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했다. 억만 년을 견디어 온 산이기에 억만 년을 견디고 살아남을 것 같은 의지로 정신을 무장하지 않곤, 인간은 산이란 자연 앞에 턱없이 허물어지고 만다는 것을 썬다는 깨달았기 때문에, 준령을 넘을 때는 늘 그 산의 정상을 넘는 마음으로 발을 떼었다.

그리고 풍설이 휘몰아치는 바위굴이나 나무 밑을 잠자리로 하게 되는 경우, 또 얼음 고갯길에 서게 되는 경우에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으며 골고다를 기어오르는 주님의 피땀을 생각하면서 추위를 더위로 바꾸었다. 썬다가 그리스도의 깊은 겸비를 목상하며 주님 안에 그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주님은 틀림 없이도 그 안에 사랑으로 내재 해주셨고, 또 추위를 막아주셨다. 그럴 때면 썬다는 그의 체온 삼십 육도 오부로도 적도 직하(直下)의 태양, 그 들끓는 듯한 남인도의 더위만큼이나 열기가 충천해서 영하의 한파를 녹일 수 있었다.

—이기반, 《히말라야의 눈꽃: 썬다 상의 생애》 중에서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정오 장민숙 박시내 박옥식 박병선 방현복 한완식  
 임정자 방문성 박혜경 한상익 정영선 김인걸 문영혜 안종일 정현주  
 구명자 박규석 박경선 박성수 김애경 이영란 이봉옥 김용길 최영혜  
 임 영 정경례 김지호 김지윤 왕성환 강순배 김시영 박홍엽 김희진  
 박홍재 임고운 한인철 조윤숙 고광송 이춘희 양재성 임미심

### 월정헌금:

안길상 이형숙 이동천 송남철 황경순 이재구 황선희 정두리 왕수명  
 이소순 이정은 김 극 서정순 이경남 이희균 김영한 권미정 이호원  
 곽권희 박병희 박미영 이은자 정원석 김현영

### 감사헌금:

김재흥 김철수 유영남 윤석철 장혜숙 방문성 최인환 김인걸 문영혜  
 황경순 장재영 김재영 유혜경 박규석 왕성환 강순배 홍순구 안홍숙  
 박석희 조항미 하재두 김천순 윤여준 영혜영 김수빈 무명3

### 생일감사헌금:

김순복 백묘현 이운화 백혜성 김시영 임보람 권 순 윤정화

구도헌금: 장혜숙 무명1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연  합  속  회	엄 순 임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김 윤 수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이 춘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박 경 선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백 묘 현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이 인 섭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박 현 우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홍 숙	정 현 주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김 시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김 혜 권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이 영 란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조 항 미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속장·인도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2. **부장회의** : 교회학교 교육부장회의가 사무실에서 1시에 있습니다.
3. **오후집회** : 오늘 오후 집회는 교사헌신예배입니다.
4. **기도의 밤** : 9일(수) 저녁 7시 30분부터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이들은 모두 오십시오.
5. **심방** : 16일부터 봄철 속별 심방을 실시합니다. 일정은 전도사님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가능합니다.
6. **성서연구반** : 3월 10일(목)부터 복음서를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15명 한정입니다.
7. **성서학당** : 3월 15일(화)부터 '바울서신'을 주제로 성서학당이 시작됩니다. 배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목회실로 신청해주시오.
8. **동호회** : 3월 동호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교우들간에 좋은 사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9. **신앙실천** : 외로운 이들이 참 많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절함 사람이 되려고 애쓰십시오.

\* 식당 봉사 : 나사렛 숙 / 김기석 한완식

\* 헌화 : 한인철 목사 조운숙 사모 (범사에 감사)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